

건설 기술인과 함께하는 미래 성장 로드맵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다. 아무리 추위도 반드시 봄이 오듯 우리 건설산업도 긴 흑한을 지나,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건설 기술인을 회원으로 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건설 기술인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우리 건설 기술인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했으며, 건설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 자원으로 건설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기술인의 공적(功績)과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 채 건설산업 이미지 추락에 휩쓸려 그 위상도 동반 하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실제로 건설산업의 이미지에 대해 보고하는 관련 연구는 다수 있지만, 건설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한 사례는 없다. 건설산업의 적폐들은 잘못된 시스템과 정책의 문제이지 건설 기술인의 잘못이 아니며 우리 건설 기술인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새로운 미래 건설시장의 창출과 해외 진출을 대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건설 기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는 건설기술인협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협회는 건설 기술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매년 3월 25일에 개최되

는 ‘건설기술인의 날’에 수여되는 포상의 훈격을 금탑으로 높이고, 5개에 불과하던 정부 포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곧 좋은 결실을 보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을 건설 기술인 사회적 위상 제고의 원년으로 삼아 보다 큰 틀에서 건설 기술인의 미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워 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해 건설 기술인의 이미지 조사와 사회적 위상 진단, 건설 기술인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관리 모델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설 기술인 허브기관으로서 협회가 해야 할 기능과 역할 증대 방안 등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건설시장의 변화와 회원 니즈를 반영한 종합적인 Action Plan과 미래 비전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예정이다.

건설 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 기술인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로서 독보적 영역을 구축함과 더불어 국가 인프라와 안전한 국민생활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혁신을 위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사회적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과 혁신을 통해 ‘건설 기술인’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자 최고의 전문가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날을 그려본다. CERIK